



국민은행 정선민(14번)이 신한은행 디종으로부터 공격자 반칙을 얻어낸 뒤 동료 선정자와 기뻐하고 있다.

■ KIA 금주의 프로야구

“에이스 3중사 출격 준비 완료”
KIA가 올스타 휴식기(7월21~24일)를 앞두고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 롯데와의 3연전에 사활을 걸었다.

KIA는 18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롯데와의 홈 3연전에 그레이싱어, 김진우, 전병두 등 1.2.3 선발을 차례로 등판 시킬 예정이다.

17일 현재 KIA는 3.4위 두산, 한화와 4게임 뒤진 5위에 랭크돼 있다. KIA로서는 이번 롯데와의 3연전에서 승수를 최대한 쌓아야만 후반기 4강 진입도 밝아진다.

일단 전력면에서는 KIA가 7위 롯데보다 우위에 있다.

팀 타율과 팀 방어율면에서 각각 0.255와 3.42로 롯데의 0.243, 3.65보다 앞섰다. 여기에 KIA는 새 용병 스카트의 합류와 ‘이적생’ 조경환이 최근 5경기에서 3할대의 불꽃타를 터뜨리는 등 팀 타선도 되살



18일-그레이싱어



19일-김진우



20일-전병두

‘빅3’ 거인전 출격

아나고 있다. 이용규, 김종국, 장성호, 이현곤으로 이어지는 중심타선의 타격감도 최절정이다.

KIA는 올 시즌 롯데와의 맞대결에서 5승 6패로 다소 열세지만 ‘부상병’ 김진우의 선발 합류가 큰 힘이다.

여기에 그동안 답답한 방망이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그레이싱어(6승9패, 방어율

3.59)도 최근 2경기에서 연속 7이닝 1실점 패투로 2연승을 질주중이다.

‘좌완 특급’ 전병두(2승 4패, 방어율 2.95)의 활약은 더욱 놀랍다.

지난 13일 LG전에서 6이닝동안 탈삼진을 무려 9개 잡아내는 완벽한 투구를 펼치는 등 최강도의 피칭을 선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방심은 금물.

◇프로야구 중간순위 (17일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삼성	44	24	3	0.647	-	1패
2	현대	39	33	1	0.542	7.0	1승
3	두산	36	31	2	0.537	7.5	2승
4	한화	37	32	2	0.536	7.5	1패
5	KIA	32	35	3	0.478	11.5	1패
6	SK	33	41	1	0.446	14.0	1승
7	롯데	30	39	1	0.435	14.5	1승
8	LG	28	44	3	0.389	18.0	1패

최근 상승모드로 돌아선 롯데의 전력도 만만치 않다.

롯데는 지난 16일 선두 삼성을 상대로 무려 14점을 뽑으며 팀 창단 25년만에 최다 점수차 완봉승을 거두는 등 타선의 폭발력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막강 화력과 함께 1.2.3 선발이 총 출동하는 KIA의 전력을 감당할 지는 미지수다.

전반기 막판 3연승을 꿈꾸는 KIA의 걸림돌은 오는 19일까지 예고된 장맛비 뿐일 듯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내 진기록

중·고육상 남고부 100m 결승서 1천분의 1초까지 잡아 공동 1위

국내 육상 100m 레이스에서 1천분의 1초까지 똑같은 동률 기록이 수립됐다.

17일 한국중고육상경기연맹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집중 호우속에 강원도 태백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4회 윈블리츠배 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 남고부 100m에서 한명준(원곡고)과 김영래(대전체고)는 나란히 10초86에 결승선을 끊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선수의 기록을 1천분의 1초까지 계속했음에도 10초855로 똑같이 결국 대회 운영본부는 한명준과 김영래를 공동 1위로 시상했다.

국내 육상 경기에서 1천분의 1초까지 계속했다는 같은 기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민은행 4년만에 챔피언결정전 진출

여자프로농구 플레이오프

천안 국민은행이 4년만에 챔피언결정전에 오르는 감격을 맛봤다.

국민은행은 17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신세계 이마트배 2006 여자프로농구 여블리그 4강 플레이오프(3전2선승제) 3차전 안산 신한은행과 경기에서 67-56으로 역전승하며 챔피언결정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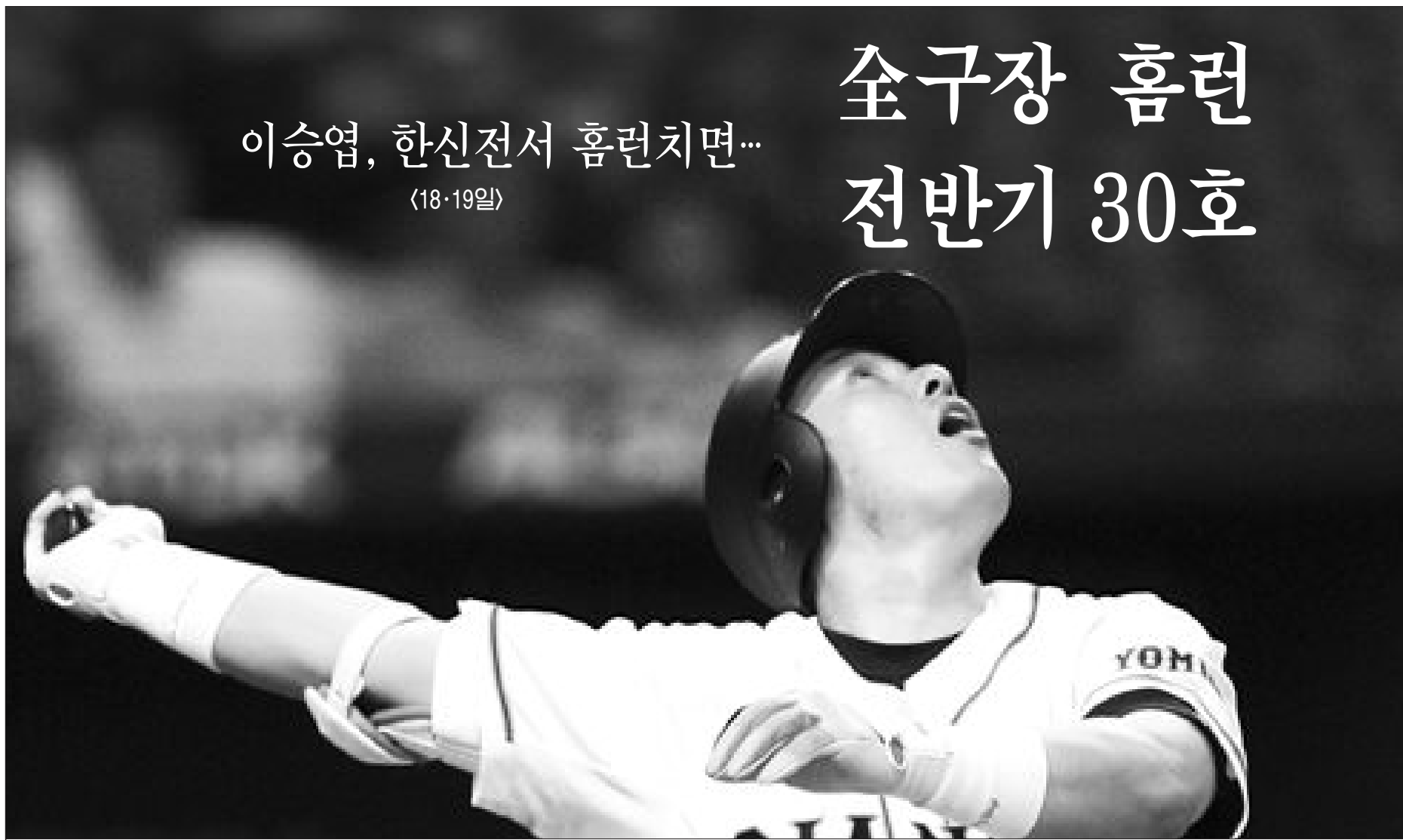
국민은행은 지난 2002년 겨울리그 이후 4년만에 챔피언결정전에 올랐으며 이번이 두 번째 챔피언결정전 진출이다.

국민은행은 이미 챔피언결정전(5전3선승제)에 올라있는 용인 삼성생명과 20일 천안에서 첫 경기를 치른다.

이날 경기는 전반까지 신한은행의 페이스였다.

신한은행은 3쿼터 시작 2분까지는 9점까지 점수를 벌려나갔으나 이후 국민은행의 반격에 3쿼터 종료 3분20초를 남기고 42-41로 역전을 허용했다. 국민은행은 49-50으로 뒤지던 4쿼터 시작 2분 25초만에 정선민의 중거리슛으로 전세를 다시 뒤집은 뒤 스테파노바의 득점으로 3점차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53-52에서 김지현의 3점포와 정선민의 연속 5득점을 묶어 61-54까지 달아나 승세를 굳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승엽, 한신전서 홈런치면... (18·19일)

쇼구장 홈런 전반기 30호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부동의 4번 타자 이승엽(30)이 라이벌 한신 타이거스와 방문 2연전을 끝으로 폭풍처럼 몰아쳐던 전반기를 마감한다.

이번 한신전은 후반기 대반격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승엽 개인이나 요미우리로서도 아주 중요하다.

특히 전반기 30홈런을 코 앞에 둔 이승

엽은 한신 홈구장인 오사카 인근 고시엔에서 홈런을 쏘아올린다면 센트럴리그 전(全) 구장 홈런을 달성할 수 있다.

한신은 18일부터 벌어지는 요미우리와의 홈 2연전에 후쿠하라 시네부, 나카무라 야스히로를 차례로 선발 출격시킬 예정이다.

후쿠하라와는 우완, 나카무라는 좌완이다. 후쿠하라는 시즌 6승1패, 평균자책점 1.

94를 올린 수준급 우완이고 나카무라는 올 첫 등판이던 지난 12일 히로시마전에서 선발승을 올렸다.

하지만 후쿠하라와 나카무라가 요미우리전에 올 처음으로 등판, 스타일과 불배합이 생소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좌우 투수를 가리지 않고 연일 맹타를 과시하고 있는 이승엽이 지난해 일본시리

즈에서 고시엔의 창공을 갈랐던 것처럼 시원한 아치를 그려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승엽은 17일 현재 홈런 29개로 양리그 통틀어 단독 선두, 최다 안타는 109개로 센트럴리그 공동 1위, 타율 2위(0.326), 타점 4위(64개), 득점 1위(70개), 장타율 1위(0.644) 등을 질주 중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해외 대기록

미 프로야구 양키스 리베라 개인통산 400세이브 달성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의 수호신 마리아노 리베라(37)가 역대 네 번째 개인 통산 400세이브의 대기업을 이뤘다.

리베라는 17일 양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경기에서 6-4로 앞선 8회 무사 1.2루에서 구원 등판, 2이닝 동안 안타 1개를 맞았지만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시즌 21세이브를 챙겼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379세이브를 올린 리베라는 21개를 보태 개인 통산 400 세이브를 달성하며 리 스미스(은퇴·478개) 트레버 호프먼(샌디에이고·460개) 존 프랑코(휴스턴·424개)에 이어 메이저리그 역사상 네 번째로 400세이브 고지를 밟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8일(화)
▲메이저리그 올스타 홈런 터비(08 : 50·Xports)

▲제26회 대동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12 : 00·KBS SKY Sports)

▲프로야구(현대-한화)(18 : 50·SBS스포츠), <롯데-KIA>(18 : 30·KBS SKY Sports)

19일(수)
▲맨체스터 Utd. 남아프리카공화국 투어 <맨체스터Utd-카이저>(03 : 00·KBS SKY Sports)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www.kukjapharm.co.kr



사랑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맡아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안과 일반의약품

• 카탈라 인안액
안과 전문의 처방받은 카탈라 인안액은 눈의 건조함을 완화시키고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눈의 건조함을 완화시키고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 신도통 쿨 점안액
눈의 건조함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탁월한 신도통 쿨 점안액은 눈의 건조함을 완화시키고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눈의 건조함을 완화시키고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 타이플 점안액
안과 전문의 처방받은 타이플 점안액은 눈의 건조함을 완화시키고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눈의 건조함을 완화시키고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국제약품 고객센터
080-022-2290 (주식회사) 02-395-0000

광고심의전화 : 878-0100

국제약품이 키발공과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은 세(대) 소(치)의 법은 물론 건강을 추구합니다.